

# 소득격차 5.3배 '역대 최대' 자영업자 대거 저소득층 추락

##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월소득 1분위 132만원 vs 5분위 942만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 효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의 소득이 늘었지만 임용 부진으로 자영업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정체됐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지만 근로·재산 소득과 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소득에서 세금·이자·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2분기 기준 36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다. 지난 2015년 2분기(3.1%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동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와 2·3·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 이상 늘었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소득 수준과 같았다.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영업자 부진으로 상위 분위의 자영업 가구가 유입되면서 사업소득은 늘고 동시에 근로자 가구 비중은 작아지면서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2·3·4분위에 있는 자영업자가 하위 분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18% 늘어나 사업소득이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분위 가구의 월소득이 정체된 반면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104만94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사업 소득이 늘어난 데다 공무원 연금 등 이전소득도 23.4%나 증

가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도 725만15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났다.

2·3·4분위 가구도 근로·사업 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5.8%, 2.2% 늘어났다.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1만1100원으로 이 중 처분가능소득은 233만2500원이었다. 3분위와 4분위 월평균 소득은 각각 419만4000원, 566만4000원이었으며 처분가능소득은 333만6400원, 444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면서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2분기 균등화 5분위 배율은 9.0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시장소득 균등화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배율(5.30배)을 뺀 정책효과도 3.77배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지난 분기에 1분위 가구 소득이 두 자릿수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하락세가 멈췄다"면서도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스1

# 100만원 벌어 22만원 세금·이자...비소비지출 '역대 최대'

## 소득 중 비소비지출

구분	2분기 월평균 (만원)	전년비 증감률 (%)	비중 (%)
소득	470.42	3.8	100.0
비소비지출	102.02	8.3	21.7
경상조세	17.30	10.7	
비경상조세*	0.64	3.9	
연금	15.67	7.8	
사회보험	16.73	7.3	
이자비용	11.57	12.4	
가구간이전지출	27.60	7.1	
비영리단체로이전	12.51	6.3	

※ 2019년 2분기, 전체 가계 월평균.

가계가 버는 소득 100만원 중 22만원은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분기 기준 역대 최고다.

특히 비소비지출 안에서는 세금과 이자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이다.

이중 세금·이자·연금 등 소비에 쓰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돈인 '비소비지출'은 102만2000원으로 21.7%를 차지했다. 100만원을 벌면

그 중 22만원은 소비와 상관 없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같은 비소비지출 비중은 지난해 해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8%대 안에 머물렀다. 그런데 지난해 2분기 20.8%로 뛰어오르더니 올해는 21.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전 분기 중 최고치는 지난해 3분기 22.4%다.

비소비지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3%로 전체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 3.8%보다 2배 이상 크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자 가 붙어오는 속도가 더 큰 셈이다.

올해 2분기 비소비지출의 구성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상조세'와 '이자비용'이다.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12.4%, 경상조세는 10.7%다. '가구간이전지출'은 7.1% 증가했다.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가구간이전지출'로 비소비 지출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경상조세는 17.0%, 이자비용은 11.3%를 차지했다.

뉴스1

# SUV에 밀렸던 세단, 쏘나타·K7으로 역공 시작한다

## 쏘나타, 2달 연속 베스트셀링...K7, 승용차 내수 1위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K7 등 국내를 대표하는 세단이 출시 후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차별화된 승차감과 넓은 실내 공간, 각종 첨단 편의사양 등을 내세워 점차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용차 시장에서 SUV의 점유율은 44.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배뉴(현대차), 셀토스, 모하비 부분변경 모델(이상 기아차), 코란도 가솔린 모델(쌍용차) 등 SUV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단의 반격이 거세다. 쾌적한 승차감과 고성능 파워트레인, 최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높은 상품성으로 내세워 고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

신두주지는 지난 3월 8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중형 세단 쏘나타는 현대차의 설명이 무색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쏘나타는 5-6월 2달 연속 내수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복합연비가 20.1km/ℓ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했다.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높이고 배터리 방전을 막아주는 솔라루프 시스템 외에도 능동 변속제어 기술, 빌트인 캠, 현대 디지털 키 등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높였다.

쏘나타가 갈아놓은 명석에 준대형 세단 K7이 가세했다. 신형 K7은 지난달 8173대가 팔리며 내수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다. 사전계약 10일만에 총 1만대가 계약되기도 했다. 특히 '단년 2위'의 실용을 안겨준 동급의 그랜저(6135대)를 처음으로 제치는 기염도 토했다.

부분변경 모델답지 않게 일부 트림에 차세대 엔진을 얹고 디자인을 대폭 변경하는 등 상품성을 높인 결과다.

액화석유가스(LPG) 모델 일반 판매 허용에 따라 르노삼성사의 중형 및 준대형 세단인 SM6, SM7도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LPG모델인 SM6 LPe와 SM7 LPe는 지난달 각각 747대, 211대가 팔렸다. SM6과 SM7의 판매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9%,



쏘나타



K7

95.5%에 이른다.

세단의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4분기에는 K5와 그랜저의 새 모델이 나온다.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 예정인 K5는 동급의 쏘나타와 함께 중형 세단의 부흥을 이끌 기대주로 꼽힌다. 2019년 시장에 나온 이후 연간 7만대 안팎씩 판매된 기아차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다.

그랜저도 11월쯤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다. 그랜저는 2016년 11월 6세대(IG) 모델 출시 이후 2년 연속 1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지킨 현대차의 간판 차량이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오늘 70여개국서 글로벌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을 23일에 70여개국에서 본격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전역,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인도 △호주 등이다. 출시가능한 오는 9월 초까지 약 1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 칠레, 호주에서 현지 미디어, 파트너 대상 '갤럭시노트10' 출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에서

는 지난 16일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축하하는 '갤럭시 팬 파티'를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2가지 크기로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S펜',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7m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혁신 기술도 탑재했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